누군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의 모든 죄에 오염돼

옛날에 영모님께서 찬송할 때에 은혜가 되니 찬송을 쉬지 않고 부르라 말씀을 했죠?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바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변하고,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사람이 하는데, 그 말씀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고도로 사모하기도 하고, 초초로 바라보기도 하고, 쉬지 않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피로 변하는 고로 그런고로 죽으려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하는 것이올시다.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길

그런고로 '생각으로 말미암아 피가 변한다.' 하는 것은 숨겨졌던 진리의 말씀이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올시다. 감추었던 지혜,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진리가 이긴자한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고로 오늘날 이긴자가 감췄던 말씀을, 감췄던 진리, 감췄던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삼사 십 일씩 금식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인 고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생각,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마귀의 마음이 죄요,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마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이제그대로 가짜 구세주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고로 엉뚱한 말을 많이 하였던 것이올시다. 진짜 구세주, 진짜 하늘의 사람이 나오면 이제그대로 이루어지기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죽지 않는 만나를 먹는 비결, 죽지 않는 만나가 바로 죽지 않는 마음이에요. 만나라니까 눈송이처럼 하얗게 내리는 게 만나라고 하는데, 그게 만나라면 성경 말씀이 영적 말씀이 아니죠? 영적 말씀이면 만나가 영이라야 맞는 거죠? 영이 마음이니까 마음이라야 말씀이 맞는 거죠? 만나도 마음이요, 은혜도 마음이요, 하나님도 마음이요, 천당도 마음이요, 지옥도 마음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데도 이게 진짤까 가짤까 하는 그런 멍텅구리는 구제불능이죠?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이제그대로 매일같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은, 벌을 줘서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니야. 매일 나와야 매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매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일 같이 영생의 만나를 먹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만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영생의 피로, 영생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매일 같이 예배를 보지 않는 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직업이 있어서, 사정에 의해서 저녁때에 나오는 건 좋은데 며칠에 한 번씩 나오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굴려가지고 변치 않으면 되겠지 하지만은 매일 안 나오는 사람은 변하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생각보다는 마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배를 만약에 보지 못하면 이제그대로 시간 시간이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방편을 쓰려니까 비디오로 예배를 보거나 녹음테이프로 시간 시간이 예배를 봐라. 그리하면 이제그대로 귓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들어오니까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요, 죽지 않는 비결이요, 영생하는 비결인 것이올시다.

죽지 않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죽지 않는 자격을 갖추어야 죽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빽이 있는 고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치가 맞지 않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이지, 하나님이 안 되면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야 영생을 누리는 거지, 자격이 없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구세주 조희성님

하루아침에 하나님 되려는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이 초창기부터 말을 했던 거죠? 일년 이년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긴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초초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만 있어야지, 무량대수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무량대수 마귀가 오염되는 것이올시다. 아무리 멀리멀리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생각해도 그 사람이 죄가 많으면 그 많은 죄가 몽땅 생각하는 순간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외 다른 것을 생각하면 죄다

승리제단 나가는데 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생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이 다 죄예요. 돌을 생각해도 죄죠? 풀을 생각해도 죄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은 다 죄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해야,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좌정하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이 좌정하면 이제그대로 죄의 마음을 조성해주는 죄의 피가 소멸되어버리죠? 죄의 피가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올시다. 하나님의 피로 전환되는 고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올시다. 의인의 생각이라야 이제그대로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피로 변해야 마귀의 생각을 하려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성경에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건 다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로 바꾸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되는 고로 천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천당은 하나님 집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인 고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들어가는 거지,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잘못된 말인 것이올시다.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인 고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변소 칸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산에 계시면 그 산이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나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늘 말하죠? 하나님이나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 되라는 말이죠? 성경은 사람더러 하나님 되라고 말을 했지, 이제그대로 죄인이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가 간다고 그렇게 씌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도 어렴풋이 씌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성경을 쓸 때에 이제그대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쓰긴 쓰지만은 뜻을 모르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만 썼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되는 고로 이거를 이제그대로 이긴자만이 알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일본 같은 데 가서 '마음먹는 대로 되어진다'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도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이라는 것은 잘 되어가다가도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망해가다가도 갑자기 잘 되는 수가 있는 고로 끝까지 인내로써 참고 견디면 성공한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본의 원리는 '나는 이 사업을 해서 확실히 성공한다!' 하는 확신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확신이 문제인 거예요. 틀림없이 성공을 한다고 이제그대로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생각이 성공을 하고야 말게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확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사람 기억 안에 드는 게 복 중의 복

어, 최기옥 집사 아니야? 이 사람 안에 기억 안에 든다는 게 복일까, 복이 아닐까? 이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죄가 순간에 다 소멸되는 거야. 이제그대로 이긴자 기억 안에 드는 것이 진짜 복이야. 이긴자가 A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 A라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순간에 완전히 소멸되고 깨끗하게 씻어지는 고로 의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기억을 하다가 기억을 멈출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고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하는 게 죄라고 그랬죠? 딴 생각을 자꾸 하면은 무량대수 마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고로 계속해서 기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계속해서 기억 안에서 살려면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지켜야죠?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한 번만 기억을 하면 죽을병도 그냥 일어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전부 오염이 되고 그 사람은 벗겨져요. 완전히 이긴자가 된 사람은 오염이 되어도 순간에 벗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도 이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오염이 되어가지고 벗겨지지 아니하니까 지옥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긴자가 되기 전에는 이제그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그대로 내 가족이라도 생각을 하면 그대로 오염이 되어가지고 몸이 무겁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프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 아는 거죠? 전도를 해보면 몸이 무거워져. 전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몸이 가볍다고 그러지? 이제그대로 전도할 때에 오염된 것만은 이긴자가 벗겨줘요. 다른 것은 벗겨주지 않지만은 전도할 때에 오염된 건 다 벗겨줘요. 전도를 하고 나면 몸이 무겁다가도 하루만 지나가면 가벼워지죠? 영적 엄마가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자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올시다. 이제그대로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의 죄가 몽땅 벗겨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말로 복 중에 복이죠? 생각만 해도 기쁘죠? 왜 그런지 기쁘고, 왜 그런지 몸이 가볍고, 왜 그런지 몸이 둥둥 뜨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죄를 싹 거둬가서 그래요. 누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거둬가요.*

1989년 10월 28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5장 모세≫

(5)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도피한 모세

(5)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도피한 모세

홍해를 건너 미디안의 해변에 닿자, 모세는 패물을 실은 낙타의 고삐를 잡고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교육을 받으면서 이웃나라의 언어를 배웠기에 아랍어도 잘 구사하였습니다. 그는 홍해 바닷가에 사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드로의 족장이 살고 있는 바드 마을로 가는 길을 물었더니, 그들은 '여기서 남쪽으로 하룻길쯤 가면 된다'고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바드 마을의 어귀에 들어서자 한 우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 우물가에 가서 앉아 쉬었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일곱이 양떼를 몰고 와서 양에게 우물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패당을 지은 것처럼 몰려다니는 남자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는 자기네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자연히 먼저 온 여자들과 나중 온 남자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남자들이 여자들을 몰아

우물가의 사내 목자들을 내쫓는 모세

내고 자기네 양부터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정의감이 강한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남자들에게 가서 먼저 온 여자들부터 양에게 물을 먹여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우락부락한 사내 목자들이 모세의 충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얕보고 다짜고짜로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궁중무술을 익힌 모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전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은 일곱 명의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우물가에서 만난 모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무리의 남자 목자들의 행패를 물리쳐 우리를 보호해주고 양들에게 물까지 길어다 먹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니? 우리 집에 모셔다가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얼른 가서 모시고 오너라."하고 명했습니다. 일곱 딸들은 다시 나가서 모세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일곱 딸의 아버지는 바로 모세가 만나고자 했던 바드 마을의 족장 이드로였습니다. 족장 이드로는 또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였습니다. 여러 인연이 겹치어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한편 애굽에서는 모세왕자의 행방을 찾지 못한 하셉숫 여왕은 화병(火病)으로 자리에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여왕의 화병은 모세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투드모세 3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데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지경을 벗어나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자, 그 이듬해에 투드모세 3세가 애굽의 왕이 되어 40년간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살았던 집터 _『떨기나무(저자 김승학)』에서

리고 투드모세 3세는 재위 기간 동안 16차례 이상에 걸쳐서 서아시아까지 원정을 감행하였는데, 원정통로에 위치한 가나안 땅은 애굽 병정들의 강탈로 황폐화될 대로 황폐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를 비축하는 국고성이 있는 고센 땅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드모세 3세의 서아시아 원정으로 인해 심한 갈취를 당하고 부역(賦役)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투드모세 3세는 왕궁이 있는 데베보다 국고성이 있는 라암셋에 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더구나 투드모세 3세의 왕위를 계승한 아멘호텝 2세(Amenhotep II)는 애굽의 속국인 서아시아에서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자 라암셋의 국고성을 임시 왕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멘호텝 2세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 서편 벧산 성읍을 애굽의 요새로 건설하고 서아시아의 속국들의 반란을 감시하고 제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안젤라